

(實錄研究家人間文化財)

李 在 範

4. 선위(禪位) 소동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종은 항상 피로운마음으로 지냈다. 그러므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길은 오직 스스로 왕위(王位)에서 피하는 일이라 생각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태종 6년 8월 18일에 돌연 영을 내려 당시 14세 밖에 되지않는 세자에게 선위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것이다. 그러한 태종의 선위의사가 그 달 26일에 거두워 지기 까지 궁중에는 큰 파란이 일어났다.

8월 18일에 태종은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 제(閔霽), 좌정승(左政承), 하 룬(河崙), 우정승(趙英茂)와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에게 세자에게 선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궁중은 소용돌이 쳤다.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 영의정(領議政) 성석린(成石麟),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엮드려 옹지않으

니 즉시 거두어 달라는 상소(上訴)를 올렸다.

「전하(殿下)의 춘추(春秋：年令)가 아직 젊으시고, 또한 나라의 기반이 튼튼하지 아니한 이때에 아직 학문을 닦아야 할 어린 세자에게 선위 하심은 옳지않다고 생각 되오니 그러한어의는 거두어 주시 오소서」

태종은 이를 거절하는 비답을 내렸다.

「이나라 사직(社稷)을 타인에게 넘겨 준다면 모르거니와 과인의 사직을 과인의 세자에게 선위하는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단 말인가」

익일과 그 다음날도 백관들은 대전(大殿)뜰에 모여 수없이 상소를 올렸다. 선위를 거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종은 내전(內殿)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대신들의 출입을 금해 버렸다.

3일째 되는날 저녁 이경(二更：10시)이었다. 태종은 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으로 하여금 국새(國璽：임금의 도장)를 몰래 세자궁으로 내려 보냈다. 신위의 표시였다.

이튿날 궁중은 발칵 뒤집혀졌다. 종친들을 비

못한 대소 조신들과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는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다.

「선위가 불가한 이유로써, 첫째, 전하의 춘추가 젊으시고, 조야가 무사하며, 둘째, 세자가 아직 어릴뿐 아니라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때이므로 대위(大位)를 감당할 수 없고, 셋째, 우리나라는 큰나라인 중국(中國)과 국경이 연결해 있으므로 군국(軍國)을 항상 게을리 할 수 없고 넷째, 나라를 새로 세운지 15년에 이와같이 세 번이나 선위(태조는 정종에게, 정종은 태종에게 선위하였음)가 있게 되면 이웃나라들이 우리나라 안에 무슨 내분(內紛)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고, 다섯째, 이제 겨우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인심이 귀일한 이때에 또다시 금상전하가 물러나게 되면 신민들의 여망을 저바리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세자 제(提)는 국새를 받들고 와서 정전에 안치하고 노회봉으로 하여금 부왕(父王)에게 아뢰게 하였다.

『신(臣)은 아직 어린몸으로 대임(大任)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그러므로 대보(大寶-국새)를 다시 되시고 왔 아오니 거두어 주시오소서』그러나 태종은 세자에게 대보를 가지고 속히 돌아가라 할뿐 내전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대신들은 노회봉으로 하여금 내전에 들어가서 세자의 뜻을 받아 들이도록 주청을 하게 하였다. 태종은 크게 노했다. 활(弓)을 들어 살을 메워서 노회봉을 견주었다. 노회봉은 혼비백산하여 황황히 뛰쳐 나왔다.

이리하여 그날도 저물어갔다. 저녁이 되자 태종은 중관을 시켜 다시 국새를 세자궁으로 돌려

보냈다.

이와같은 소용돌이는 8일간이나 계속되었다.

9일이 되는 26일이었다. 태종은 이숙번을 불러들여 은밀히 물어 보았다. 『희한한 일이로다』 지난밤 꿈속에서 모후(母后-神懿王后韓氏)가 나타나서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은 어찌하여 나를 굶게 하려는가”

숙번은 간곡히 아뢰었다.

『전하께서 어린 세자에게 선위를 하시고자 하니 이는 마침내 나라를 보전하지 못한다는 계시(啓示)이 옴고 그렇게 되면 모후의 향사(享祀)가 끊어 진다는 뜻이라고 헤아려 지웁니다. 그러므로 선위코자 하심은 신(神)과 인(人)이 모두 꺼리는 것이온즉 그러한 어의는 거두시는 것이 옳을까 하오이다.』 태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하여 골똥히 사색에 잠겼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뇌었다.

『과인의 보위를 과인의 세자에게 선위코자하는 것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이던가……』

그러나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었던지 그달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선위의 뜻을 거두었다.

5. 세자빈(世子嬪)과 종묘계시(宗廟啓示)

태종 7년 7월 13일. 세자 제는 친히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따님을 세자빈으로 맞아 들였다. 그날 세자는 공복(公服)을 갖추고 연(輦)에 올라 김한로의 저택으로 행차할 제 한 사람의 내시(內侍)는 나무기러기를 받들고 전도(前導)를 하였으며 그뒤에 서연관(書筵官)을 비롯한 숙위(宿衛) 일행은 세자의 뒤를 따랐다. 행

차는 김한로의 저택에 이르러 초례(樵禮-婚禮)를 마친 다음 빈(嬪)을 동반하여 세자궁으로 돌아왔다. 당초 세자빈을 간택(揀擇)할 때에 여러 명문 귀수(閨秀)가 물망에 올랐으나 태종은 의안대군과 지신사(知申事) 황 희(黃喜)를 종묘(宗廟)에 파견하여 신(神)에게 계시(啓示)를 구한 결과 마침내 김한로의 따님으로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분이 바로 숙빈(淑嬪)이었으며 세자 제가 폐(廢)하여 양녕대군(讓寧大君) 이 됴에 따라 숙빈 또한 폐빈이 되어 부부인(府夫人)으로 비운의 강봉을 당한 분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세자빈을 간택할 때 종묘에서 계시를 받아 결정한 사실이다.

「종묘에서 방책(方策)을 구 하였던바 마침내 김한로의 따님을 얻었다. (宗廟探策 乃得 漢老之女) 고만 기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에 관련하여 태종 4년에 송도(松都=開城)로부터 한양(漢陽=서울)으로 환도(還都)할 때에 또한 「종묘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때도 그와같은 방법을 썼지 아니한가 여겨진다. 다음에 한양환도에 즈음한 종묘계시 방법을 소개한다.

일찌기 태조가 한양을 서울로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어 통치를 하여 오다가 뜻하지 아니한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수도를 송도로 옮겼으나 태종이 즉위하자 다시 한양환도를 서두르고 있었다. 태종 4년, 송도에서는 한양환도를 둘러싸고 이론이 분분하였다.

송도를 영원한 도읍으로 정하자는 수구(守舊) 측과,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환도측이 대립이 되어 쯤썌 공론의 통일을 보지 못하였다. 태

종은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침내 종묘의 계시를 받기로 결정 했다.

그해 10월 6일. 태종은 군신(君臣)을 거느리고 종묘에 이르렀다. 뜰에서 참배를 한 다음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 좌정승(左政承) 조준(趙浚), 대사헌 김희선(金喜善), 지신사 박석명(朴錫命), 사간 조휴(趙休) 등을 거느리고 종묘신실에 들어갔다. 향(香)을 피운 뒤에 이천우로 하여금 동전(銅錢)을 반(盤)위에 던지게 하였다. 그 결과 한양은 2길 1흉(二吉一凶)이고 송도는 2흉 1길로 나타났다.

『조종(祖宗)께서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 가라 계시를 하였으니 한양환도로 결정한다.』 이리하여 한양환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卒 群臣禮拜 卒 完山郡八廟空上春跪命 天祐 擲錢盤中 新都 二吉一凶 松京 二凶一吉 上出議乃定)

이와같은 풍습은 당시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하다.

태종은 세자빈 김씨를 며느님으로 맞아 들인 다음 세자빈의 친정아버인 김한로를 불러서 간곡한 당부를 하였다.

『과인은 오래 전 부터 경이 근후함을 깊이 아는 까닭에 경의 따님을 세자빈으로 맞아 들인 것이요. 세자빈은 다음날의 이나라 국모(國母)가 될 위치에 있으니 경은 이를 명심하고 경의 사위인 세자로 하여금 다음날의 훌륭한 제왕이 되도록 지도해주기 바라오.)

6. 진표사(進表使)

태종 7년 9월 25일. 세자 제는 진표사(進表使)가 되어 부사(副使) 이천우(李天祐), 진

전사(進箋使), 우정승 이 무(李茂)와 진전부사 계성군(鷄城君)이래(李來) 등을 거느리고 명(明)나라로 출발하였다.

이와같은 정·부사외에 시종관으로 우군총제(右軍總制) 이현(李玄) 등 12인과 서장관(書狀官)으로 윤설칭(尹薛稱) 등 6인, 압물(押物)의원(醫員), 내시(內侍), 사의(司衣), 감주(監廚), 타자군(駝子軍)타각부(打角夫), 양마(養馬)등 수십명이 배종을 했다. 태종은 친히 장의문(藏義門)까지 행차를 하여 세자를 전송했다.

『길이 멀고 험하니 스스로 몸 조심 할지니라. 세자의 책임이 더 없이 중 하거니 종사와 생민을 위하여 각별 조심하여 소임을 다 할지이다』

부왕의 간곡한 말씀에 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인사를 드렸다. 그를 본 태종의 어안에도 현연히 어루(御淚)가 감돌았다. 좌우에 도열하고 있던 신료(臣僚)들도 모두 눈 시울을 적셨다. 참으로 다정한 부자간의 이별이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세자를 떠나면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는 태종의 뜻은 무엇일까. 장차 그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세자로 하여금 제왕으로서 식견(識見)을 넓혀 주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리라.

정부의 육조(六曹) 관서와 의정부 대신들은 남대문까지 배송을 하였으며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그는 중친의 어른이다)는 중친을 거느리고 임진(臨津)나루까지 전송을 하였다.

그 해 10월16일 세자는 요동(遼東)에 도착했다. 총병관(惣兵官) 보정후(保定候) 맹선(孟善)과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및 내관 왕언(王彦) 김춘산(金春山) 등이 4 일간을 쉰 다음 다시 명 나라 서울인 북경(北京)으로 향했다.

12월 하순에 세자가 명나라에 들어서자 명나라 황제는 금의위지휘(錦衣衛指揮) 천호(千戶)로 하여금 천여기의 기마병으로 하여금 세자를 호위케했다. 강동역사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부상서(禮部尚書) 정사(鄭賜)와 내관(內官) 황엄(黃嚴)의 안내를받아 북경(北京)에 들어섰다. 회동관(會同館)에 여장을 풀자 명나라 황제는 대신을 보내어 노고를 위로했다.

곧, 명제(明帝)에 대한 알현례(謁見禮)가 있었다. 명제는 서각문(西角門)에서 조선 세자의 문안을 받았다. 홍로왕 소경(鴻臚王少卿)의 인도를 받아가며 세자는 전상으로 올라갔다.

황제는 세자에게 하문을 했다.

『세자는 금년에 몇 살인가?』

『열네살이 옵니다.』

황제는 부드러운 음성과 온화한 낮빛으로 세자를 대했다. 채사의(綵絲衣) 다섯 벌과 한삼(汗衫) 옷을 하사했다.

황제가 베푼 환영연을 마치고 회동관에 돌아오니 황제는 곧 이어 이부상서(吏部尚書=內務長官)건희(蹇義)와 내관황엄을 시켜 야자실(椰子實)을 가지고 세자에게 문안을 하게 하였다.

다음날에 세자는 황제를 찾아가서 전일의 후대를 사은(謝恩)하고 돌아오니 이어서 호부상서(戶部尚書=財務長官) 하원길(夏原吉)과 내관 황 엄등이 회동관으로 찾아와서 세자에게 문안을 드렸다. 이로부터 각부 상서들은 번갈아가며 세자에게 문안을 드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주체성없는 사대주의(事大主義)의 역사로 알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작은나라 조선의 세자에게 황제의 나라 상서들(장관)이 이와같이 번갈아가

며 문안을 드리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사대의 실상은 그것이 강제적인 굴복(屈伏)에서 보다 오히려 작은나라와 큰나라 사이에서 예의(禮義)로써 존경하고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하루는 서각문에서 황제를 대하였더니 황제는 세자에게 말했다.

『세자는 부왕(父王=太宗)을 많이 닮았구나 다만 키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로다』(貌似乃父但身長稍異耳) 일찌기 태종이 왕자로 있을 때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 황제는 태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어 정월(正月) 신유일(辛酉日)에 황제는 친히 봉천전(奉天殿)에 나아갔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다. 조정 백관들이 예복을 갖추어 품계에 따라 도렬했다. 그러나 세자에게는 예복을 주지 않았다. 세자는 전상으로 올라가서 황제에게 말했다.

『조선은 명나라 다음으로 의관(衣冠)을 중히 여기는 나라인데(문명국이란 뜻) 어찌하여 신에게는 예복을 주지 않사옵니까』

황제는 예부상서를 불러 꾸짖었다.

『집이 이미 조선세자에게 2품반열에 서도록 영을 내린바 있거늘 어찌하여 이렇듯 무례하게 처우를 한단 말인가 조선세자에게 속히 예복을 주어 공후(公候)의 반열에서 참제토록 하라』

이리하여 황제가 남교(南郊)에서 단(壇)을 모아 하늘에 친제를 할 때에 세자는 공후의 열에서서 참제 하였다.

세자는 조천궁(朝天宮)을 비롯하여 영곡사(靈谷寺)와 무영전(武英殿)등을 관광한 뒤에 그

해 4월 2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좌정승 성석린은 육조관서등 백관을 거느리고 석적(石積)교외까지 나아가 세자를 맞이했다.

태종은 광연루(廣迎樓)에 잔치를 베풀어 세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무백관들도 차례로 하례를 드렸다. 태종께서는 심히 만족하게 여겼다.

『너의 모습을 보니 전날보다 더 장대 한것도 같구나. 명제(明帝)가 너를 대함에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성심을 베풀었다하니 심히 다행한 일이로다.』

세자를 배행했던 이천우가 아뢰었다.

『황제께서 호송관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이 15세의 어린 세자로 하여금 만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이렇듯 짐을 찾게 하였으니 그 성의가 지극하도다. 너희들 호송관은 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호송할지이다. 만약에 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처사가 있으면 엄한 죄로 다스릴것이니 각별 유령하라.”고 하였으므로 그들 호송관들은 잠시도 세자의 걸을 떠나지 않았읍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에는 그들이 부액을 하여 편안하게 돌아왔읍니다.』

태종은 용안에 훈풍이 감도는듯 만족해 하였다.

7. 어긋나는 기대(期待)

그러나 운명의 시기신(猜忌神)은 서서히 장난을 시작했다.

태종 8년 11월 15일. 태종은 모후(母后) 한씨(韓氏)의 신주(神主)가 뒤편에 있는 문소전(文昭殿)에 친히 제향을 드리기로 하고 세자도 함

게 나와 아헌(亞獻=두번째 잔을 드림)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세자는 나오지 않았다. 태종은 세자를 기다리다 부득히 하 룬(河崙)으로 하여금 아헌을 하게 했다. 이것이 태종과 세자와의 사이에 불화(不和)가 일어난 첫번째의 불씨였다.

태종은 세자를 불러놓고 크게 꾸짖었다. 세자는 몸이 불편해서 못나왔노라 대답했다. 그러나 태종의 노여움은 풀리지 아니했다. 태종은 모후 한씨를 지나치리만큼 숭모(崇慕)하고 있었다. 그를 탄생케한 생모일뿐 아니라, 불행하게도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승하를 하였기에 생전에 왕후로 영화를 켜 보지 못한것을 크게 한스럽게 여기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으며 추연히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그 후 세자가 나오지 않자 태종의 노여움은 무리가 아니었다.

태종은 세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알고있는 閭祖(閭祖)를 불러 『너는 두 세자가 <토막지<

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면 너에게 중죄를 내리리라!』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손윤조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에 있을진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여 장차 어진임금이 될수 있도록 덕성을 함양하는데 힘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윤조는 본래 충신(忠信)과 성격(誠恪)의 자질도 없이 한낫 교활하고 망녕된 언행으로 세자를 그릇되게 보필하였으므로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를 파직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손윤조는 파직이 되었다.

9년 1월 21일. 세자궁에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환관 이매(李梅)등이 세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자에게 탄궁(彈弓=약기)을 바친것이 탄로가 났다. 그때 궁중 법도로는 제왕이 그와같은 풍류를 즐겨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제왕이 풍류를 즐기면 마음이 사치해져서 어진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매등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곤장 30대를 맞고 순금사(巡禁司)에 하옥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다만 치즈시켜 양서 개발 미국 치즈제조되고 찌꺼기 효시켜 드대량 생산

찌꺼기를 발효시켜 포도주

2. 남은 우유찌꺼기를 발효 주를 만드는 방법이 미국에

식품공학과 교수팀은 최근 1 단백질과 지방분이 제거된 유장(乳漿)을 효모로 발효시켜 트레할로스의 함유량이 높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것.

유장은 지방과 단백질성분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당분을 마치 효모를 발효시킬 때처럼 효모로 발효시키면 우수한 알콜이 된다.

이같은 동물성 포도주는 순수 포도로 만든 포도주에서와 같은 향긋한 냄새는 없으나 원료가 되는 유장을 치즈공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 가격은 기존의 식물성 포도주에 비해 25~33%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